

고지도와 의궤, 예술작품으로 만나는 조선시대 생활상

‘예술과 정보의 만남’ 주제로 한 규장각 특별전 열려

규장각(관장 정옥자)이 서울대학교 개교 55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규장각 1층 전시실에서 특별전시회를 열었다. ‘예술과 정보의 만남’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고지도, 의궤, 예술관련 자료 등 학술적 가치와 예술적 성취도가 뛰어난 작품 80여종을 선보였다.

고지도는 조선시대의 지리정보는 물론, 당시의 사회를 지배했던 사상이나 종교적 믿음, 과학기술까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이번에 전시된 고지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청구도>를 비롯해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 <동여도> <도성도> 등이다. 조선시대 국왕의 혼인, 왕세자 책봉, 왕실의 장례, 궁궐 건축, 실록 편찬 등 국가 행사의 전과정을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한 <숙종인현후책례도감의궤> <화성성역의궤>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 등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상들의 예술혼이 깃든 예술관련 자료는 서예, 회화, 음악, 전각 등으로 분류해 선조·숙종·영조·정조 등의 어필과 문인들의 필첩, <악학궤범>과 다양한 전각 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전시회는 시서화(詩書畫)를 기본 교양으로 하고 음악을 가까이 했던 선조들의 일상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 박옥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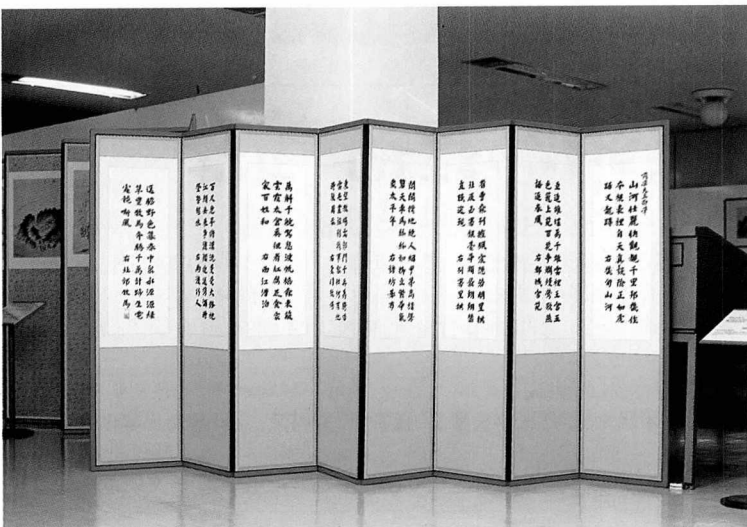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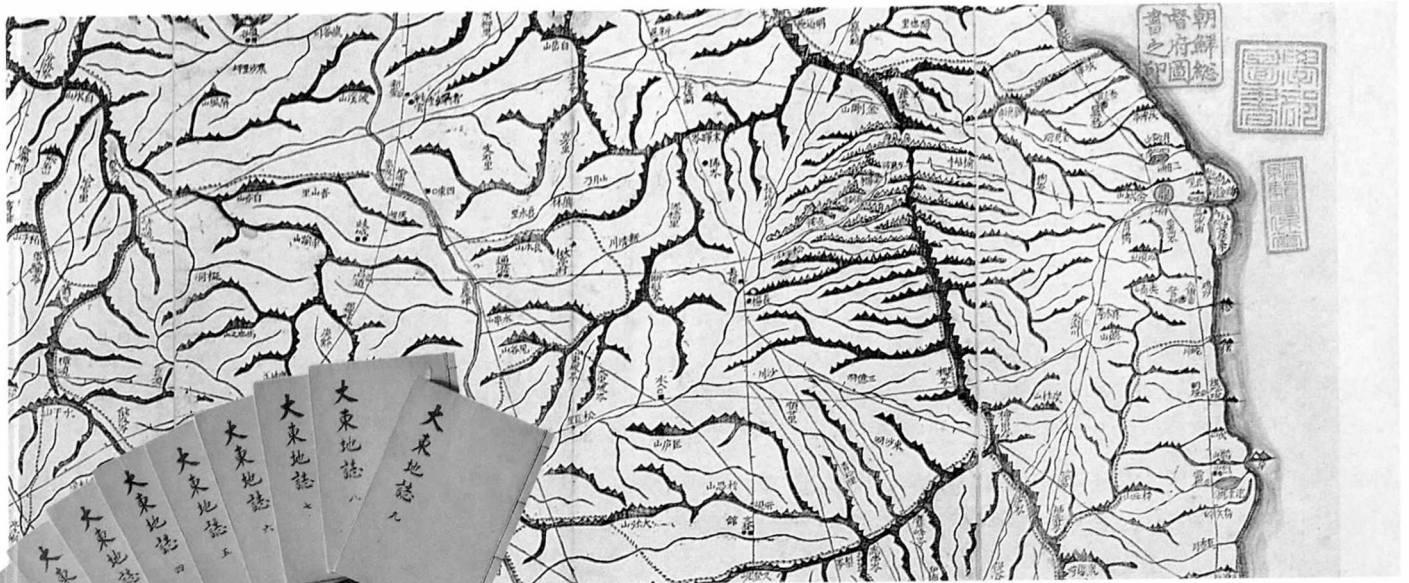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는 우리 전통문화의 잠재력과 우수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전시관 내부 풍경(위).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궤>. 명성황후의 시후 장례기록을 담은 의궤. 좌측 노란색 비단 표지는 황제에게, 우측 붉은색 비단 표지는 황태자에게 올린 것이다. 1898년. 3책 필사본(왼쪽).

<숙종어필(肅宗御筆)>. 숙종이 서울의 경관 여덟 곳을 칠언절구로 읊은 <경도팔경시(京都八景詩)>를 해서로 쓴 어필첩. 8쪽 목판본(왼쪽 아래).

<악학궤범(樂學軌範)>. 1493년 간행된 조선시대 음악의 유일한 지침이었던 악전(樂典).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10년 장악원에서 다시 펴냈다(오른쪽 아래).





전국의 산수, 방어시설, 거리, 역사, 지리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지리지 《대동지 지(大東地誌)》(필사본)와 1861년 제작한 조선전도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목판본). 《대동여지도》는 전국을 남북 120리 간격으로 22층으로 구분한 22첩의 지도로, 세로 약 6.7m, 가로 약 3.3m에 이르는 대형 지도다. 사진은 금강산 일대(위).

《동국도적(東國圖籍)》. 18세기 초반에 제작된 수진본(袖珍本)으로 팔도지도와 도별지지가 함께 수록돼 있다. 지방 수령이나 선비들이 여행할 때 휴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첩 목판본(오른쪽).

《열성어필(列聖御筆)》. 1725년 조선 역대 국왕들의 친필을 모아서 만든 책. 사진은 선조가 그린 난초와 대나무다. 2책 탁본·목판본(왼쪽 아래).

《관제옥보전문(關帝玉寶篆文)》. 1902년 황제에 즉위한 고종이 국가제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 관영묘를 관제묘로 격상시키면서 만든 옥보의 전문. 1첩 필사본(오른쪽 아래).

